

이상(李箱)의 초기시에 나타난 한국근대건축의 '근대성' 탐구

정인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1. 서론

본명이 김해경인 이상(李箱)은 1910년 서울 사직동에서 태어났다. 1926년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하여 3년동안 건축을 익힌 그는, 졸업하자마자 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수로 취직하여 1933년 각혈로 인해 사직할 때까지 4년의 기간동안 건축실무를 담당하였다. 그후 그는 건축계를 떠나 문학가로서의 길을 걷는데, 1937년 동경에서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체포되어 28세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수많은 기행(奇行)과 여성편력, 그리고 난해한 문학작품으로 한국근대문학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간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높은 문학적 성과 때문에 이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학쪽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가 남긴 시나 소설은 그 난해성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수많은 평전이나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었다.¹⁾ 한

국의 대표적인 문학평론가들이 대부분 그의 문학을 다루었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 한국 근대 문학의 독특한 단면, 즉 '모더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단층을 파악하려 하였다. 이런 방대한 노력으로 이상문학의 실체는 많은 부분이 규명되었고, 그래서 고은은 '이상문학에 대한 비평적 정리는 거의 끝났다'²⁾고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앞으로 문학 이외의 분야에서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라는 존재는 김윤식의 이야기대로 '문화계 전체에 연결된 문제의식'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보다 넓은 지평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또한 그의 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도 직결된다. 이상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들이 가졌던 의식의 한 유형을 대변하고 있고, 그것은 다른 서구의 아방-가르드들의 그것과 비교할만하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로 인해 근대다운 근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영역들, 특히

1) 김윤식이 연구한 바로는 이상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24편, 1960년대 55편, 1970년대 103편, 80년대에 64편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이들을 구분하면서, 그는 "이상문학의 문제성은 언어와 관련된 문학적 방법론, 의식과 관련된 병리학적 방법론,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철학적 방법론의 큰 테두리에 각각 관련되며, 그 세부적 분화가 다양할 수밖에 없

음도 또한 자명하다"(김윤식, 李箱論의 행방, 심산, 1975.3)라고 지적한바 있다.

2) 고은, 이상평전, 청하, 1992년, 323쪽.

그중에서도 건축분야에서는 이상을 ‘근대성’에 대한 하나의 전범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상의 초기시를 분석하면서 두가지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그의 초기시에는 건축적 담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근대건축사 연구에 그들이 주요 주제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건축계에서 이상이 언급된 경우는 있었으나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³⁾ 두 번째는 이렇게 이상의 초기시를 한국건축사 연구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의 한국 근대건축사 연구의 방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기존의 주요 연구들이 주로 근대건축의 양식적인 수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반면, 이상의 초기시는 진정한 근대성을 건축적 담론의 형태로 표출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스타일이나, 형태, 도구적 기술의 관점이 아닌, 근대적 자아를 통한 세계의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관점으로 한국건축의 근대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상의 초기 시들은 빠르게 변모해 가는 대도시에 대해, 그리고 생활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던 근대적인 기계문명에 대해 서구의 아방-가르드들이 가졌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2. 이상(李箱)시와 건축적 담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건축적 담론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이 기존의 이상연구와 어떻게 다른가가 거기서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담론은 대화의 기본조건을 의미한다. “담론은 그것을 형성하는 제도와 사회적 실천의 종류에 의해,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과 말을 듣는 상대의 위치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⁴⁾ 따라서 그것은 비동질적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주체가 없다. 그리고 모든

제도(institution) 속에는 수많은 담론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매듭들과 변별점들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변별점들은 담론들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각 담론들이 가지는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이런 담론의 개념을 꼬집어 들인 이유는, 이 글이 건축과 문학 사이의 경계를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계에 존재하는 변별점들은 건축과 문학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분야를 소통시키면서, 각 분야가 가지는 ‘근대성’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상이 총독부 관방회계과 영선계에 건축기수로 재직하면서 <朝鮮と建築>에 발표한 그의 초기 시⁵⁾들은, 그가 건축기사로 일하면서 건축잡지에 기고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축적 담론이 담겨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그들은 당시 건축계 전반을 관통하는 주류적인 담론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건축작품보다 근대성의 문제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그의 초기 시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이해될 때 보다 온전하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접근이 기존의 이상연구와 어떻게 구별되고 또 이상문학의 지평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5) 여기서 이상의 초기 시(詩)라고 함은 1931년과 1932년에 총독부 관방회계과 영선계에 다니던 시절 <朝鮮と建築>에 기고한 일문시들을 일컫는다. 이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상한 가역반응>이라는 제목으로 <朝鮮と建築> 1931년 7월에 실린 7편의 일문시(日文詩).

② <오감도>라는 이름으로 <朝鮮と建築> 1931년 8월에 실린 7편의 일문시.

③ <삼차각 설계도>라는 이름으로 <朝鮮と建築> 1931년 10월에 실린 7편의 일문시.

④ <건축무한육면각체>라는 이름으로 <朝鮮と建築> 1932년 7월 호에 실린 7편의 일문시이다.

⑤ <朝鮮と建築>의 1932년 6월부터 1933년 12월까지 연재한 13편의 시

⑥ 그리고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연재된 한글시 <오감도>는 앞서 연재한 시들과 매우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3) 이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책에서 잘 나타난다. 김정동, ‘이상과 1930년대의 도교’, 일본을 걷는다, 한양출판, 1997년.

4) Diane Macdonell, Theories of Discourse(담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옮김), 한울, 12쪽.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이상문학을 서구 아방-가르드들의 생각과 비교하여 그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그의 시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같은 비교는 이상의 난해한 시를 이해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식의 기원을 밝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이상문학과 서구 아방-가르드들을 연결시키는 연구는 지금까지 적지않게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이들을 살펴보면 조형분야보다는 주로 문학분야로만 연관시켜서,⁶⁾ 이상의 초기 시가 가지는 의미를 보다 엄밀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브르통, 엘뤼아르, 아라공 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각예술과 문학은 많은 점을 공유하며 겹쳐져 있다⁷⁾. 이 연구는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상과 서구의 아방-가르드, 특히 그 중에서 다다(Dada)와의 연관성은 확실해 보인다. “구인회(九人會)의 같은 동인이었던 조용만은 이상이 다카하시(高橋新吉)⁸⁾, 하루야마(春山行夫)

등의 시를 애독하였으며, 하루야마는 당시 <セルペン(Serpent)>의 주간이었던 바 이상은 항상 잡지 세로판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였다.”⁹⁾ 다다이즘이 일본을 통해 한국에 소개된 때는 1920년 초이고 20년대 중반부터는 하나의 뚜렷한 유형 또는 유파적 이즘으로 소개되었다.¹⁰⁾ 이상이 구인회 멤버로 활동한 시기 쯤이면 벌써 10년정도의 시간이 경과했고, 그래서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 다다이즘의 생각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고은도 이상평전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시인인 하루야마(春山行夫)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상이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¹¹⁾ 그렇지만 문학분야 외에도 이상은 그 자신이 계속해서 시를 발표했던 <朝鮮と建築>¹²⁾과 건축관련 서적을 통해 서구의 아방-가르드들의 생각을 흡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이 건축을 전공했던 1925년부터 1931년까지 이 잡지에는 14편의 모더니즘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¹³⁾ 이들 기사들은 거의 1-2년의 시

6) 서구의 아방-가르드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각 예술 장르 별 구분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동질함 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각 장르 상의 구분은 엄격해 보이고, 그래서 심각한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이상문학을 조형분야와 연관시킨 초기 연구가 있다; 조동민, ‘Cubism을 통해서 본 한국의 해체시’, 문호, 건국대, 1969년; 구연식, 한국 다다이즘의 비교문화적 연구, 문학사, 1979년. 그러나 이들의 해석은 별다른 새로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몇 개의 글은 이상 시가 가지는 시각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안상수, 타이포그래픽적 관점에서 본 이상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96년; 김민수, ‘시각예술의 관점에서 본 이상시의 혁명성’, 이상문학연구60년에 수록, 문학사상사.

7) 김현, 푸코의 미술비평, 이것은 Michel Foucault, Ceci n'est pas une pipe(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김현 옮김)에 수록, 민음사.

8) 한국에 다다이즘의 도입과 관련하여 高橋新吉은 중요한 인물이다. 紫蘭, 羊頭生가 일본에 소개한 다다이즘에 심취되어 다다리스트가 된 그는, 고한용을 통해 다다이즘을 한국에 소개했다. 그 당시 상황은 <개벽> 1924년 10월호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林和가 문장지에 2권 2호에 쓴 다음의 글은 당시 한국지식인이 서구-아방가르드의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잘 드러낸다. “高橋新吉이란 이의 시집을 사읽고 따따이즘이란 말을 배웠습니다. 一氏義良이란 이의 <未來派연구>란 책, 외의 <아렉세이 강(Alexei Mikhailovich Gan,

1898-1971을 지칭하는 듯함)>이란 이의 구성주의 예술론, 표현파 작가 <카레에 시민>과 더불어 로망 로오랑을 특히 민중극장론과 <愛와 死의 회롱>을 道하여야 했습니다.”

9) 조동만에게 설문조사. 이것은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 구연식, 한국 Dadaism의 비교문화적 연구 문학사, 1979년, 118쪽.

10) 조은희,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다다이즘, 초현실주의의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연구, 제 72집, 1987년.

11) 고은은 春山行夫가 발표한 <조류학(鳥類學)>이라는 시집과 이상의 <오감도(鳥瞰圖)>와 자상이 비슷하며, 실제 시의 시형도 매우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은, 이상평전, 청하, 140-141쪽.

12) 이상은 1929년부터 이 잡지의 발행기관인 조선건축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 사실이 이 잡지를 통해 공표되었다.

13)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포함된다. 藤島亥治郎, 근대건축 노트 서(序): 와그너 이후(1925년 1월), 근대건축 노트 1: 윌터 그로피우스(1925년 2월), 근대건축 노트 2: 한스 필찌히(1925년 3월), 근대건축 노트 3: 찰스부르그의 대극장에 대하여(1925년 4월) G.F.생, Hans Poelzig의 건축관(1926년 1월) 笹慶一, 구미시찰중의 笹이사로부터(1926년 2-5월) 藤島亥治郎, 유럽 체류 중의 藤島이사로부터(1927년 2월 -1928년 8월) 岩永龍太郎, 건축에서의 모더니즘(1927년 2월)

차로 서구의 건축과 예술계의 활동을 전하고 있다. 이상이 이 기사들에 분명히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그가 1932년 9월에 쓴 <原經驗>, 1932년 10월에 쓴 <感覺, 裝飾, 藝術> 그리고 <예술의 리듬> 이라는 세가지 시에서 잘 나타난다. '모호리-, 나가기'로 시작하는 이 시들은 당시 바우하우스의 교수였던 모홀리 나기(Moholy-Nagy)의 생각을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여 시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¹⁴⁾ 이 때 이상이 그에 관한 지식을 얻었던 곳이 다음아닌 <朝鮮と建築>을 포함한 건축 관련서적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상과 동시대의 건축가인 박길룡과 박동진¹⁵⁾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서의 '근대성'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98년생인 박길룡과 1899년생인 박동진은 연배로는 이상보다 10년 이상 위지만, 1920년대 경성고공을 졸업하고 이상과 같은 시

기에 총독부에서 건축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1932년 이상이 각혈로 인해 총독부 기수직을 사임할 때 박길룡도 사임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개인사무실을 개업하였다. 이후 이상은 문학가로 나머지 두사람은 건축가로서의 길을 걷는데, 당시 지면을 통해 발표된 이들의 글을 비교해 보면 서구의 근대문명의 수용에 관한 두가지 뚜렷한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경우 근대문명이 가져다 준 그 충격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었고, 그의 시는 그것이 갖는 총체적인 면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반면, 박길룡과 박동진은 서양의 모더니즘을 도구적이고 기술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다. 그들의 관심은 주로 주거개량과 근대건축의 형태적인 수용에 머물렀던 것이다. 물론 이런 비교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 세사람이 각기 다른 직분의 길을 걸었고, 건축과 문학은 비교가 힘든,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이 문학가 이전에 건축가였기 때문에 이들은 서구의 근대문명을 받아들이며 당시 한국의 건축가 혹은 지식인들이 보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부분인데, 이상의 감성에 큰 영향을 미친 서울의 도시공간과 그의 시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상에 관한 기존의 비평서를 살펴보면, 많은 양이 이상의 심리적 상태와 텍스트와의 관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상 문학에서 나타나는 중층적 의미와 해독이 거의 불가능한 표현들을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최근에 와서 더욱 두드러져서 이상문학을 오로지 정신분석의 대상으로만 삼은 논문들과 책도 많이 등장하였다. 미적 자의식을 유난히 강조하는 그의 문학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의 의식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의 심리적 분석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응용하는 수준

內藤資忠, 설리반과 라이트의 기능주의 (1928년 6-9월)
 中村誠, 건축의 신경향 (1929년 3월)
 橋瓜大藏, 꼬르뷔제씨에 관하여 (1929년 3월)
 野村孝文, 모스크바의 현대건축 (1929년 5월), 다가울 건축 (1929년 6월)
 伊東忠太, 현대사상과 건축 (1931년 2월)

14) <感覺, 裝飾, 藝術>이라는 시를 읽어 보면, 이상이 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모홀리 나기가 'M'이라는 잡지에 쓴 <Konstruktivismus und Proletariat>를 이상이 일어로 읽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시 모호리-, 나가기.....
 감각적 훈련, 감각연습
 재료의 경험, 구조, 조직, 조형, 집합체
 창작활동의 방법으로서의 생물공학. 원 칩.....책임.....형식자의 자유

장식
 고대에 있어서는 오나멘트란 이따금 기능과 융합해 있었다.
 평면편성. 콤포지션. 콘스트락션. 전설.
 고전미의 공리
 아카데미 교육
 예술은 상부구축을 한다.

15) 이 두사람의 연구는 다음의 논문에 잘 나타난다. 최순애, 박길룡의 생애와 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1년; 안창모, 건축가 박동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년.

에서 머물고 있어서 편협된 시각을 노출하고 있다.¹⁶⁾ 이런 정신분석학적 분석이 기초하고 있는 가정들은 작가가 성장기에 받은 정신적 외상들이 심리상태를 왜곡시키고, 이것이 문학 작품속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상의 이상심리의 가장 큰 요인으로 유년기의 비정상적인 성장환경을 꼽았다. 즉, 태어나자마자 혈통을 잇기 위해 백부의 집에 양자로 입적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정신외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유년기의 비정상적 성장만으로 그의 문학세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가의식 속에는 이런 정신외상을 포함하여 수많은 외부와의 관계들이 축적되어 있고, 그들도 작가의 글쓰기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가 쓴 텍스트는 바로 이런 총체성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성장기에 받은 정신적 외상 외에도 그의 독특한 심리구조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 바로 1930년대 서울이라는 구체적인 도시현실과 그가 건축가로서 활동하면서 체험한 다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자본주의적 공간구조로 탈바꿈해 가는 1930년대의 서울과 그곳에서 활보하는 군중들, 그리고 근대문명이 가져다 주었던 아찔한 현실에 많은 충격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더욱이 그는 이런 현실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 들이는 건축가라는 직분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의 시와 소설에 이런 충격이 매우 생생하게 담겨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

각한다. 보들레르가 파리라는 대도시에서 경험한 ‘무감각함’(blasé)¹⁷⁾과 ‘산책자’(flaneur)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이상(李箱)시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상(李箱) 시에 대한 건축적 연구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것은 서울이라는 근대도시의 인식, 공간변화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불안, 서구 근대건축이 표방하는 이념의 이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용과 반발 등의 연구를 포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서구 아방-가르드의 역사적 의미

이상(李箱) 시가 서구 아방가르드들의 미의 식과 매우 깊은 관련을 지니고있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이상시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에 앞서 이들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술가들에게 막중한 사회적 임무가 부여된 시기는,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때였다. 그 변화로 인해 발생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현실에 건축가들이 개입하여 거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질서를 부여했던 것이다. 1차대전 이후에 나타난 서구의 아방-가르드 운동과 근대 건축은 이런 점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려는 인간의 대응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인류역사상,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킨 도시화만큼 인간의 거주환경을 변모시킨 경우가 별로 없다. 그만큼 그 변화의 과정은 격렬했고, 따라서 예술가나 건축가의 활동 또한 파격적이고 치열했다. 이태리 건축사가인 만프레도 타푸리(Manfredo Tafuri)는 서구의 아방-가르드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임무를 규정하면서, 새롭게 변모된 세

16) 동일성의 혼동, 분리불안(separation anxiety), 양가성(ambivalence), 상동성(stereotype), 음동증, 퇴행현상(regression in the service of ego), 자아협소증, 억압(repression), 방어기제(defence mechanism),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가학성 등은 이상 문학을 분석하기 위해 동원된 주요 심리학적 개념들이다. 그리고 이상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다룬 책들은 다음과 같다 : 박진환, 정신분석으로 심층해부한 이상문학연구, 조선문학사, 1995년 ; 김중은, 이상의 정신세계, 심상, 1975년 3월 ; 조두영, 이상초기작품의 정신분석, 신경정신의학, 38호, 1977년 2월.

17) 짐멜은 이 개념을 가지고 대도시인들의 정신상태를 표현하였다. 즉, 이미지가 급변하고, 눈길을 던질 때마다 불연속적이고, 갑작스런 인상이 주는 예기치 못한 힘 때문에 발생하는 신경자극의 심화현상은 짐멜이 보기에는 메트로폴리스의 새로운 조건을 대변한다. 가치와는 무관심한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Georg Simmel, Die grossstädt und das Geistesleben, Dresden, 1903년. 위의 구절들은 Manfredo Tafuri의 책에서 재인용

계, 즉 자본주의의 생산체계에 맞도록 변모된 도시환경을 대중들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절대적인 소외의 장소인 메트로폴리스에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¹⁸⁾, 거기서 부르조와들이 계속해서 받게 되는 쇼크를 예술활동을 통해 완화시키려고 하였다.¹⁹⁾

인식의 단절이 가져다 주는 간격을 메우기 위해 서구의 아방-가르드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그 중 가장 최초로 나타난 것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주장하며 새로운 문명이 가져다 주는 유토피아를 그려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19세기 초반부터, 로버트 오웬, 생-시몽, 샤를 푸리에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²⁰⁾ 그리고 20세기 초의 이태리 미래파는 이들의 이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유토피아를 그려낸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려낸 유토피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속으로 점차 삼입되고, 이 과정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심각한 모순과 불균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방-가르드들의 시도들이 출현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새로운 현실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났다. 타푸리는 그것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첫번째는 네덜란드의 드 스틸(De Stijl) 그룹과 유럽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근대 서구의 메트로폴리스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을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현상들로 인식시키기 위해, 그들은 기계 문명이 해방시켜 놓은 새로운 힘을 어떤 형식으로든 조절하여 일관된 질서를 부여하려는 것이

다."²¹⁾ 그렇게 함으로써 인식과 시각적 변화로 인해 계속해서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인식의 단절이 가져다 주는 간격을 매우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다이스트들에게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들은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질서보다는 혼란스러움을 택하여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현실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이고자 했다."²²⁾ 그들은 그 혼란을 풍자하고 야유하면서, 도시의 비합리적이고 무질서한 현실을 확인한다. 그것을 표상하면서, 현실이 만족시킬 수 없는 요구를 암암리에 제기한다. ²³⁾ 이런 두가지 태도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경함에 부딪혔을 때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태도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아방-가르드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를 소개할 수는 없고 이상의 초기 시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예만을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드 스틸(De Stijl)에 관한 것이다. 이 운동은 피에트 몽드리앙과 테오 반 도즈버르그라는 두사람에 의해 주도되었고, 조형예술에 '구축(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근대미술과 건축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상의 초기 시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들이 공간과 형태를 정의하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그것은 근대문명이 변모시킨 공간과 형태를 해석하고 재조직하여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래서 새로운 현실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몽드리앙은 "형태의 세계에 일반법칙이라고 할만한 보편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²⁴⁾ 그리고 이 보편성을 찾기 위해 눈에 보이는 다양한 형태들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환원시켰다. 이경우 구체적인 형태들은 가장 기본적인 선, 평면, 공

18) Manfredo Tafuri, *Projet et Utopie*, Dunod, Paris, 1979년, 70-71쪽.

19) 앞의 책, 5쪽.

20) 이들의 도시계획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Leonard Benevolo, *The origins of Modern Town planning* (근대도시계획의 기원과 유토피아), 장성수, 윤혜정 역, 태림문화사.

21) Manfredo Tafuri, 앞의 책, 80쪽.

22) 앞의 책, 81쪽.

23) 앞의 책, 81쪽.

24) 김현철, *몽드리앙의 조형공간 교육론*, 1996년, 발언, 35쪽.

간, 색과 이들의 관계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현실은 고립된 채 추상화된다. 다양한 선들은 수직과 수평의 기본적으로 선으로 환원되고, 다양한 자연색들은 빨강, 파랑, 노랑이라는 조형적 선들로 환원되며, 배경적이고 투시도적인 공간은 '결정되지 않는' 면으로 환원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들로 환원된 형태들은 예술가의 의지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다. 이때 재구성된 세계는 원래의 그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조형세계가 된다. 우리가 드 스틸 운동을 요소주의(Elementalism) 혹은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맥락 때문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세계를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은 드 스틸 운동 이외의 아방-가르드 운동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큐비즘은 기계문명이 가져다 준 새로운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상하기 위해 시각적 동시성을 부여하는 몽타주(montage)기법을 선보인다. 러시아의 구성주의 운동은 새롭게 대두된 물질과 재료들을 가지고 그들의 건축적 성질을 탐구하였다. 이들 모두는 비록 그 방향이 달랐지만, 새로운 환경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세계관에 맞춰 재구성하여 나름대로의 그 내적 질서를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4. 이상(李箱)시에 나타난 '근대성'의 문제

이상(李箱)시에서도 서구의 아방-가르드들과 비슷한 해체와 조합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특이한 양상을 띠게 된다. 먼저 시기적인 문제인데, 이상의 시도는 서구 아방-가르드들에 비해 거의 15년쯤 후에 나타났다. 이때쯤이면 서구에서는 이미 아방-가르드들의 생각들이 더 이상 특이한 것이 아니라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건축과 도시, 그리고 여러 응용예술에 접목되고 있었다. 25) 항상 뒤늦게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원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시도들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리고 (그 정신적 뿌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나타난다. 이상문학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시가 난해해 보이는 것은, 서구의 아방-가르드의 경우 그 정신세계가 내적 일관성을 가지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로부터 필연성을 가지면서 도출된 반면, 이상의 경우 근대문명에 대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로서는 수백년간 축적되어 온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단기간에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당시 한국사회의 현실상 그런 작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에 많은 어려움을 따랐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총독부 기수직을 물러날 때까지 그가 <朝鮮と建築>에 발표한 일문시에서는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일관성을 가지고 근대성을 탐구하고 있어서 주목할만하다.

이상의 초기 일문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전해 오는 느낌은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전혀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부분들이 갑자기 의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의 당혹감과 두려움이다. 그것은 서양의 근대문명이 가져다준 충격 때문에 일어났다. 이상이 서양의 물리학을 접하기 전에 하늘은 그야말로 그냥 하늘이었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대로의 별빛이었다. 또 태양과 광선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어진 여건이었다. 인간이 늙어감에 따라 시간의 흐름은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당연히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 광선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 일정한 속도와 양을 가진 대상으로 이야기된다. 또 별빛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머나먼 우주에서 날라오는 빛이다. 인간의 운동이 중력과 관련되어 설명되고,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라는 단위

25) 1923년부터 바우하우스에서 대량생산을 위한 기계적인 공예품들이 나타나고, 1925년에는 르 꼬르뷔제가 '빛나

는 도시'를 통해 새로운 산업사회의 이념형을 정의하고 있다. 1927년 독일의 바이센호프 주거단지에서는 근대 집합주거 전람회가 열려서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수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아파트 유형을 만들어 냈다.

로 설명되었다. 시간도 빛의 속도와 공간과 관계하여 과거가 미래가 될 수 있고, 미래가 과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비록 물리학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었지만, 그에게 세계는 참으로 <이상한 가역반응>으로 가득찬 것이다. 이 세계를 하나의 대상으로 지각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 나오는 분리된 시각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름과 양, 속도 등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것은 과거의 주술적 세계로부터 탈신비화된 세계로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다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근대문명이 속속 현실 속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차, 전등, 전화, 자동차, 근대식 건축물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그가 받은 쇼크는 참으로 거대했고,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 설명하고 이해하고 싶었을 것이다. 계속되는 쇼크로 인해 발생하는 고뇌를 줄이기 위해 어떤 식이든 새로운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그의 초기 시에 잘 나타난다.

먼저 이상과 동시대의 모든 지식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전율하고서, “익숙한 기존의 것들을 해체하여 시인 특유의 방식으로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약호에 새로운 함축을 주었다.”²⁶⁾ 그래서 그의 초기 시에는 “일정한 의미가 사상된 순수 기호로서의 기본단어가 비정합적으로 그리고 고도로 추상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²⁷⁾

- 1) 이러구러 숫자의 combination을 망각하였던 약소량의 뇌수에는(Le Urine)
- 2)속도 etc의통제예컨대광선은매초당삼○○○○○킬로미터달아나는것이확실하다면사람의발명은매초당육○○○○○킬로미터달아날수없다는법은물론없다.(線에 關한 覺書 1)

3)미래로달아나서과거를본다,과거로달아나서미래를보는가,미래로달아나는것은과거로달아나는것과동일한것도아니고미래로달아나는것이과거로달아나는것이다.(線에 關한 覺書 5)

4)원자구조로서의일체의연산의연구

방위와구조식과질량으로서의숫자의성능성질에의한해답과해답의분류(線에 關한 覺書 6)

5)공기구조의 속도-음파에 의한-속도처럼이백삼십미터를 모방한다.(線에 關한 覺書 7)

6)평행사변형대각선방향을추진하는막대한중량

시계문자반에XII에내리워진일개의침수된황혼(建築無限六角體面)

7)허나 그때의 나는 아직 한 개의 방정식무기론의 열렬한 신봉자였다(1931년, 작품 제1번)

이 과정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어느 것도 절대적인 가치로 부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의하게 되었다. 여기서 서구의 근대성이 기초하고 있는 주체와 객체의 분열, 자연적인 현상의 탈신비화, 객체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해체와 재구성 등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여겨진다. 이와함께 사물의 의미와 기호의 구분, 실재와 표상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문자와 숫자의 시각적 구성, 언어의 자동화에서 벗어나려는 데페이즈망과 같은 서구 아방-가르드들의 시도들이 그의 초기 일문시에서 곳곳에서 나타난다.²⁸⁾ 가령 <異常한 可逆反應>에서 남자의 모습을 ‘▽’로 여자의 모습을 ‘△’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성적으로, 외형적으로, 본성적으로 구분되는 남자와 여자의 실재를 최소한의 기호로 환원시킨 것이다. 그리고 공간의 방향을 ‘4’로 표현한 것과 (이것은 건축적인 도면기호에 따른 것이지만), 남녀의 성적결합을 33 혹은 69라는 숫자기호로 환원시킨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또한 이상은 <三次角設計圖>에서 나오는 <線에 關한 覺書 1>과 <線에 關한 覺書 3>에서 공간을 좌표와 수와 점으로 환원시키고 있고, <診斷 0:1>에서는 인간의 몸과 질병을 비슷한 방법으로 숫자화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학자 퍼

26) 김정은, 해체와 조합의 시학, 문학사상, 1985년 12월.

27) 한상규, 1930년대의 모더니즘 문학의 미적 자의식, 이상문학전집 4, 문학사상사, 1996년.

28) 이어령, ‘이상연구의 길찾기’, 이상문학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년, 16쪽.

스가 이야기한 순수한 싸인(signe pur)²⁹⁾의 탐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셸 푸코가 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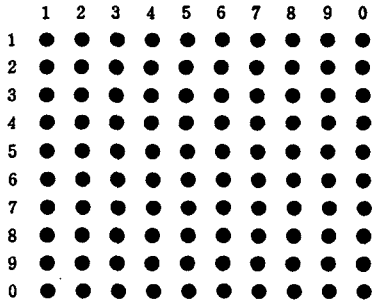


그림 1. <線에 관한 覺書 1>에 나타난 도표

문학의 출현을 이야기하면서, 문학이 자신의 실재를 긍정하는 이외의 어떤 법칙도 소유하지 않은 순수한 언어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³⁰⁾. 이상은 자신의 시를 통해, 어떤 개념도 가지지 않은 문자와 숫자들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가를 살폈다.

이외에도 신비화되고 모호한 현상들을 분해하고 고립화시켜 계속해서 그 근원으로 환원시키는 표현은 그의 초기시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상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것에 도달하려 했다. 마치 테오 반 되즈버그가 구체적인 현실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형태를 환원시켜서 본질적인 것을 이끌어 내듯이, 이상 역시 언어의 반복을 통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해 나

갔다. 8)에서 원자를 반복시켰을 때 그것은 물질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고, 9)에서 과거는 시간의 기원, 10)에서 성운은 우주의 근원, 11)에서 사각형은 공간구조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8)원자는 원자이고 원자이고 원자이다.(線에 관한 覺書 1)

9)자꾸만 반복되는 과거, 무수한 과거를 경청하는 무수한 과거(線에 관한 覺書 5)

10)조상의 조상의 성운의 성운의 성운의 태초를(線에 관한 覺書 5)

11)숫자를대수적인것으로하는것에서숫자를숫자적인것으로하는것에서숫자를숫자적인것으로하는것에서숫자를숫자적인것으로하는것에서(線에 관한 覺書 6)

12)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AU MAGASIN DE NOUVEA- UTES)³¹⁾

세계를 계속해서 분절한 다음, 그것을 재구성하면서 이상은 새로운 코드체계를 구축하려 하였다. 이 경우 이상에게 지각되는 현실은 과거에 것과는 달리 최소한의 단위로 기호로 환원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과 의미적으로 관계되면서도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상은 이런 기호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자 했다.

14)시각의이름을가지는것은계획의효시이다.시각의이름을발표하라.

□ 나의 이름

△ 나의 아내의 이름(이미 오래된과거에있어서나의AMOUREUSE는이와같이도총명하리라)

시각의이름은사람과같이영원히살아야하는숫자적인어떤일점이다. 시각의이름은운동하지아니하면서운동의코스를가질뿐이다.(線에 관한 覺書 7)

이처럼 이상의 초기 일문시는 서구의 근대문

29) 퍼스는 순수한 싸인이 상징적인 모든 의미와 모든 의미론적인 지시사항이 거세된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순수한 사이의 발견, 어떤 지시사항도 거세된 대상의 발견, 중성적인 언어들의 자의적인 관계를 조작하는 순수한 싸인이 가능하다는 보았는데, 이것은 바로 야방-가르드들이 도달했던 결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Manfredo Tafuri, 앞의 책, 139쪽.

30)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말과 사물, 이광래 옮김), 민음사, 348쪽.

31) 일문시의 번역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였다. 김승희 편저, *이상 (이상 시전집, 산문집, 이상평전, 연구자료)*, 문학세계사, 1996년.

명을 접했을 때 가졌을 경이로움, 두려움, 전율, 그리고 분노가 생생히 나타나 있고, 또 서구의 아방-가르드들이 했던 작업과 같이 세계를 끊임없이 순수한 기호로 환원시켜 거기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시는 한국의 모더니즘의 전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5. 한글시 오감도에 담긴 건축적 담론

이상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아방-가르드적인 경향은 한글시 <오감도>시 제 1호에서 고도로 정제된 형태로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대적인 공간구조의 변화가 불러 일으킨 다양한 반응들, 즉 전통적인 공간의식과의 마찰, 새로운 공간구조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의지, 대도시에서의 공허감과 무력감 등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상의 시 가운데 가장 건축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한 것으로 인식된다.

먼저, 오감도(鳥瞰圖)라는 시 제목 자체가 매우 건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투시도의 일종인 조감도(鳥瞰圖)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어령에 따르면, “이 말은 새 조(鳥)자에서 눈알에 해당하는 획 하나를 빼낸 테페이즈망의 일종으로”³²⁾ 해석된다. 이승훈도 “이 시의 표제가 조감도가 아니라 오감도로 된 것은, 이유야 무엇이든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볼 때 풍경을 고감하는 시의 화자가 자신을 새가 아니라 까마귀와 동일시함을 시사한다”³³⁾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상이 조감의 위치를 취함으로써 “이 시에서 화자는 시가 보여 주는 경험적인 세계

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적 상황에 대해 어떤 행동이나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는 오직 시적 경험의 세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³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설명만으로 왜 이상이 이런 자세를 취했느냐가 명료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상이 현실을 어떻게 보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표상했느냐가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감도라는 제목 자체에서 이상이 세계를 바라보는 두가지 태도를 유추해 낼 수 있다. 하나는 이상이 이 세계를 투시도적으로 보았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투시도 가운데 특별히 조감의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선택은 이상의 공간의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감도는 투시도의 일종이다. 투시도는 파노프스키의 이야기대로 인간의 정신생리학적인 공간을 수학적 공간으로 전환시킨 것이다.³⁵⁾ 현실적으로 인간의 눈은 결코 투시도적인 장면과 똑같이 지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투시도는 우리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경험하는 앞과 뒤, 위와 아래, 좌우와 같은 방향성이 없다. 공간의 모든 부분들과 그것의 내용들은 단일한 연속체(quantum continuum)로 흡수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속된 공간내에 들어있는 사물들의 거리와 깊이는 기하학적인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투시도가 현실을 표상하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상이 투시도적으로 현실을 재단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세계를 기하학적인 혹은 기계적인 세계로 환원시키려는 의도라고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오감도는 그의 초기 일문시에서 나타난 정신과 그대 로 연결된다.

투시도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장면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떼어

32) 오감도는 익숙한 글자에 변화를 가하여 전혀다른 의미를 갖게한다. 즉, 조감도 대신에 오감도란 말을 써서, 까마귀가 고목 나뭇가지에 앉아 마을을 굽어보고 있는 한국의 원 풍경과 조감도의 원 의미인 Bird eye view 가 새로운 관계로 만나는 것이다. 이어령, 앞의 책, 16쪽.

33) 이승훈, <오감도 시제 1호>의 분석, 이상문학전집 4, 1996년, 322쪽. 이상은 이미 이전의 식에 까마귀에 관련된 시를 쓴바 있다.

“까마귀는유사공작과같이비약하여비늘을질서없이번득이는반개의전체에금강석과추호도다름없이평민적운곽을일물전에빛으며”(LE URINE)

34) 앞의 책.

35) Erwin Panofsky, Perspective as Symbolic Form, Zone Books, New York, 1991년, 30쪽.

내어 엄격한 수학적 법칙에 따라 그것을 재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실점과 시점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것을 그린 사람의 공간의식이 투영된다. 그렇다면 오감도에 투영된 이상의 공간의식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상문학에서 공간의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것은 주체의 존재론적인 위기상황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문학적 기법면에서 이미지의 확산을 위해, 어떤 경우에는 상징적 의미의 대립적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원되었다.”³⁶⁾ 이상이 남긴 시와 소설에서 공간의식은 두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나는데, 하나는 현실속의 자신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실존적인 공간이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적인 공간이다. 첫 번째 공간은 자폐적인 현실의 공간이고, 두 번째 공간은 열려진 가상의 공간이다. 그의 소설 ‘날개’에서는 첫 번째 공간의식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두 번째 공간의식으로 이행되어 나갔던 반면, ³⁷⁾ 오감도는 두 번째 시점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상이 이 시에서 조감의 시점을 잡은 것은 대상들을 고립화시켜서 거기에 명징한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투시도의 화면구성, 시점과 소실점으로 구성된다. 이 둘을 바꾸면서 사물 혹은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한다. 시점을 눈높이로 할 경우, 거기서 그려지는 투시도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장면과 가장 유사하다. 그렇지만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질서를 일목요연하게 판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시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가 명료해지는 반면 점점더 현실은 왜곡되고, 드디어 새의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는 현실은 매우 추상적인 형태로 환원되어 버린다. 거기서 모든 도시의 현실은 사라지고 마치 지도와 같이 그 공간을 지배하는 질서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구

체적인 현실을 개념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조감의 정신의식은 이상에게 두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서양의 근대문명이 던져다준 쇼크와 혼란스러움에서 탈피하여 그것에 고도의 질서를 부여하려는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되고, 또다른 하나는 이상이 현실의 질곡으로부터 이탈하고자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도 볼 수 있다. 이상의 시와 소설을 보면, 욕상으로 올라가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런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³⁸⁾

오감도의 시제1호에서는 공간성을 암시하는 말로 뚫린 골목과 막다른 골목의 두가지 요소가 등장한다. 이들 외의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배제되어 있다. 대부분의 오감도 해석에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소홀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데,³⁹⁾ 이들은 이상의 정신공간을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두가지 의미로 이해된다. 우선 이상이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즉각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뚫린 길은 근대적인 도시공간을 상징하고, 막다른 골목은 전통적인 가로체계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들은 사방이 딱 막힌 현실과 가상 속의 열린 공간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시에는 이 두가지가 양가(兩價)적으로 동시에 사용된 것은,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그의 의식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두가지 의미가 결합되면서 이상이 가지는 현실적이고 관념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되었고, 공포는 바로 이 두가지가 격렬한 마찰을 일으키거

38) 욕상으로 올라가는 대목은 이상의 시와 소설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에 대한 예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층위에있는이층위에있는삼층위에있는욕상정원을올라서남쪽을보아도아무것도없고(運動)
나는 어디로 어디로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욕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날개)

39) 이승훈은 이상의 오감도에 나타난 도로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시 속에서 도로는 ‘막다른 골목’이어도 좋고 ‘뚫린 골목’이어도 좋다고 진술됨으로써 도로자체의 의미보다는 질주의 의미가 강조된다”

36) 권영민, 이상연구의 회고와 전망, 이상문학연구 60년에 수록, 문학사상사, 29쪽

37) 이어령, 앞의 책.

나 모순에 빠졌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감도의 공간을 설정할 경우, 그 공간 속으로 13인의 아해의 의미도 명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골목길과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어떤 특수성,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자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에 해당하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어떤 특수한 삶의 속성들이 추상화된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이렇게 본다면 오감도에서 등장하는 공간과 그곳의 등장인물은 철저히게 이상의 의도에 따라 구성된 하나의 무대 세트와 배우처럼 보이고, 그들은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audot)>의 무대처럼 질제되고 추상화되어 있으면서도 현실과 이상의 공간의식을 밀도있게 그려낸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오감도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무서움이다. 많은 문학평론가들은 오감도를 분석하면서, 전반적으로 깔린 불안과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41) 이상에게 무서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동시대 공간구조와 인식환경의 변화가 불러 일으킨 충격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의 불안과 공포는 그의 의식 내

40) 13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최후의 만찬에 참석한 그리스도 이하 13인(임종국), 위기에 당면한 인류(한태석), 무수한 사람(양희석), 해체된 자아의 분석(김교선), 당시의 13도(서정주), 시계시간의 부정(김용운, 이재선), 이상자신의 기호(고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승훈, <오감도 시제 1호>의 분석, 이상문학전집 4, 문학사상사, 1996년, 322쪽.

41) 이 승훈은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로 표현된 사실을 중시하고, “공포가 주체이면서 동시에 공포가 객체가 되는 심리상태는 공포이기 보다는 불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이승훈 엮음, 이상문학전집 1, 18쪽). 김윤식은 ‘이상문학의 총체성이 공포의 기록임을 확인하고’, 그 공포의 근원으로 두가지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유년시기 받았던 심리적 외상이 드러난 것이고, 두 번째는 각형과 관련된 자살과 죽음의 등가사상이라고 본다. 임종국은 “인간이 창조한 제도, 과학, 사상 등 노력의 결정이, 현금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철폐함으로써 공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김윤식 엮음, 이상문학전집 4, 70쪽).

부적인 원인과 함께 외적인 원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른 서구의 근대시인들과 아방가르드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기도 하다. 발터 벤야민은 보들레르의 시를 분석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불안과 공포를 “구타를 당하기 전에 공포에 떨어 버명을 지르는 예술가의 결투”⁴²⁾라고 비유하며, “이 결투는 그 자체가 창조적인 과정이다”⁴³⁾고 이야기하였다. 여기서 벤야민이 이야기하는 보들레르의 충격적 경험이란 주로 낯설게 인식되는 현실과 그것의 인상에서 주로 기인한다. 그것은 오스만에 의해서 시도된 파리의 도시형태의 변화, 만국박람회에서 전시된 기계문명의 산물들, 자본주의에 맞게 변형되는 도시구조, 그리고 그 속을 배회하는 군중들이다.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오스만의 파리개조계획은 서구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인구의 팽창에 대응하는 최초의 대규모 도시계획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던 기존 도시구조에 대해서 대대적인 외과수술을 벌인 사건이었다. 그는 전체 가로망을 건설하기 위해, 과거 유물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파리의 중심을 관통하는 관통로(percées)를 뚫었다. 오스만의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렇게 정의된 도시선(alignement)이 다른 모든 부분을 지배한다는 것이다.⁴⁴⁾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계획된 기계적인 도시계획이 인간의 감수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그것은 일체의 관습이나 성향, 전통을 무시하고 오직 중성적이고 무감각한 2차원의 도면 위에서 도로선들은 그어졌다. 도시공간은 객관적이고 명료한 기하학적인 체계로 재구성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전략한 것이다. 이제 커다랗게 뚫려진 도로는 더 이상 근린적인 차원의 만남의 장소가

42) Walter Benjamin, 문예비평과 이론, 문예출판사, (이대동 역), 195쪽.

43) 같은 책.

44. Marcel Roncayolo, Histoire de la France urbaine, Tome IV, Seuil, 1983, 102쪽.

아니라 물품과 사람들을 수송하는 곳이 되고, 그곳은 스피드와 유혹으로 충만된 소비의 장소가 된다. 커다란 도로에 의해 만들어진 블럭은 더 이상 자연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하나의 상품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분할된다. 땅이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파는 것이 된 이상, 그 곳은 과거처럼 정령의 신(Genius loci)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물신이 지배하게 된다. 건물들도 도시를 구성하는 유기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품처럼 기계처럼 단절되고 유통하는 대상이 된다. 바로 이렇게 변모하는 파리에서 보들레르가 겪었던 인식의 단절은 격심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정향성, 즉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가 인식되던 길은 그 시작과 끝이 없는 관통도로 변모되고, 그 곳에 전혀 생면부지의 군중들이 활보하게 된 것이다. 보들레르가 체험하였을 그 상황을 엥겔스는 그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황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에서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좁은 공간 속에 밀집해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잔혹한 냉담과 개인의 사적 일로의 무감각한 집중현상은 점점 더 냉혹하고 가혹해진다.”⁴⁵⁾

보들레르가 파리에서 그리고 엥겔스가 런던의 거리를 거닐면서 느꼈던 그 충격의 경험을 이상도 서울의 길들을 방황하면서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구가 350만에 육박하던 런던이나 파리에 비해 인구 50만에 불과하던 서울에서의 체험이 불안함과 공포의 강도 면에서는 덜 하겠지만 말이다. 이상이 확보할 당시 서울도 오스만의 파리개조계획과 유사한 도시개조가 진행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11월 6일 총독부 고시 78호로 경성시구 개수예정노선(京城市區改修豫定路線) 31개를 발표하였다.⁴⁶⁾ 조선의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행된 이 사업의 기본구상은 도시구조를 도로와 그것에 의해 둘러싸인 블럭으로 재편하

는 것으로 오스만의 파리개조계획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일제는 조선시대부터 생겨난 기존의 도로를 직선화하고, 주요 도로에 보행로와 차로를 구별하였으며, 교통량이 빈번한 구간에는 도로포장을 하였다. 이어 1926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서울 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종로를 중심으로 구획정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좁은 소로와 막힌 골목길들로 구성된 시가지를 격자형의 구조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런 일제의 서울 도시계획은 이상의 삶의 무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⁴⁷⁾ 그의 유년시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렇게 확장된 도로 주변으로 4-5층의 양식 건물들이 들어섰고, 그 아래층에는 신기한 물건들을 전시한 쇼윈도우가 설치되었다. 확장된 도로에는 전신주가 솟아 있고, 전차가 오갔으며,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한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상이 활동한 1930년대 서울의 인구가 거의 두배로 늘어났기 때문⁴⁸⁾, 그 밀도감은 더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어지럽게 나붙은 간판과 포스터,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 한복을 입은 사람과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뒤섞인 복잡한 거리는 그의 의식을 지배하는 중요한 이미지들이다. 이런 변모된 도시의 분위기에서 이상은 낯설음과 생경

45) 발터 벤야민, 앞의 책, 재인용.

46) 손정목, 일제강점기의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년, 102쪽.

47) 이상은 경성부 북부 순화방 모정동 4동 6호에서 출생하여, 곧 경성부 통인동 154번지의 백부집으로 이주했고, 1917년부터 통인동에서 멀지 않은 누상동의 신명학교에 입학하여 4년을 보냈다. 졸업과 동시에 그는 1921년 건지동에 있는 동광학교에 입학하고, 1922년 불교교단에서 인수한 보성고보에 동광학교가 해체, 편입됨에 따라 보성고보가 있는 수송동 44번지로 옮겼다. 그리고 1926년 보성고보를 졸업하고 동송동 소재 경성고공에 입학했다. 이후 그가 동경으로 떠날 때까지 그는 서울 명동 근처를 배회했다.

48) 1930년 서울의 인구는 약 40만명이었으나, 1936년의 서울 인구는 72만명이었고, 1940년의 서울 인구는 93만명이었다. 물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원인으로, 서울이 주변지역을 통합하면서 그곳의 인구를 흡수한 것도 있지만, 일제에 의해 기형적으로나마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농촌인구가 서울로 올라와 정착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김인, 권용우 편저, 수도권지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년.

함, 그리고 절대적인 소외감을 느꼈고, 특히 건축을 전공하는 그에게 이런 혼란스러움은 의식 깊이 각인된 것으로 보인다. 오감도에서 나타나는 공포와 불안의 정체도 주로 이런 현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13인의 아해'도 그의 미가 보다 명료해진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상의 동시대 군중의 모습, 앵겔스가 이야기한 냉혹하고도 무관심한 도시의 군중을 상징적으

해라도중소).

6. 결론 : 이상과 한국의 근대건축

이제 이상의 문학이 한국 건축사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나를 가름해 보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사실 이상은 문학가 이전에 건축가로 평가받을만하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건축가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건축을 그만둔 것이지만, 제대로 된 근대식 건축교육을 받은 건축가가 드물었던 당시로서는 상대적으로 근대건축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진 건축가로 인정할만하다. 그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죽기전 몇 년을 제외하고는 성년기의 대부분을 건축과 함께 보낸 사람이었다. 그가 수학한 경성고공은 한국에서 건축가를 양성하는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물론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축기술자의 양성이 이 기관의 목적이었지만, 일제시대 활동한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들, 즉, 박길룡, 박동진, 김세연 등은 이상과 똑같은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건축가로 성장하였다. 대부분의 이상평전을 보면 그의 건축적 삶이 백부에 의해 강제로 시작되었고, 내내 그 생활에 회의와 권태를 느끼며, 그래서 경성고공과 총독부 기수생활이 문학에의 길로 나아가는 예비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상은 그가 그렇게 흠모해마지 않았던 근대적 이성, 혹은 그것의 물리적 도구로 건축을 상징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정이지만 만일 그가 각혈을 하지않고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총독부 기수직을 사임했을가하는 의문도 든다.

그렇지만 이상을 건축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이런 명백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축사가들이 한국의 근대건축사를 서술하면서 그를 근대건축의 중요한 전범으로 삼지 않은데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세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상 자신의 조형의지나 공간개념을 구체화시킨 건축물이 전혀 남아 있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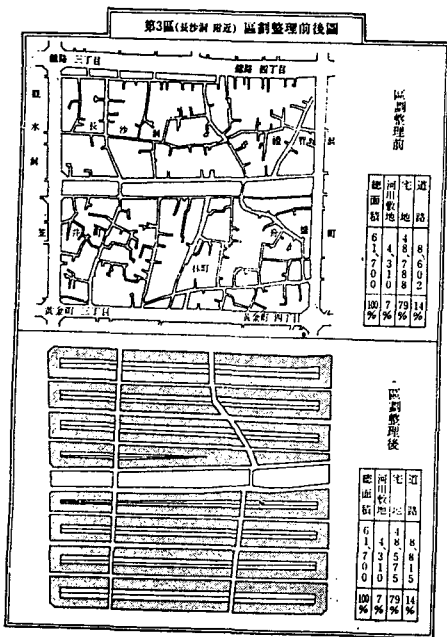


그림 2.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이전과 이후의 모습 (출처 :손정목, 일제강점기의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로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새로이 난 도로를 빠른 걸음으로 활보하고 (13인의아해가 도로로질주하오), 그들은 거의 충격에 가까운 변화를 무서워하거나 혹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 그들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가 무서워하는지도 모른다(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

는다는 사실이다. 그의 평전을 읽어보면 의주로에 있는 전매청 청사의 설계와 준공을 맡아서 일했다고 하지만, 당시 총독부 영선계의 조직운영을 살펴보면 그의 독자적인 설계행위는 거의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막 건축 일을 시작한 신참이고, 당시 총독부 조직상 설계에 관여할 정도라면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했다.⁴⁹⁾ 만일 그가 근대적 의미의 건축 활동을 했다면, 즉 당시 그가 다른 총독부 영선계 기수들처럼 퇴근 후 독자적으로 설계를 의뢰받았다면, 4 여년의 총독부 기사생활 동안 경험하였던 그 단조로움과 권태를 마찬가지로 경험했을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담은 건축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존재를 건축사에서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각인시켰을 뿐 그에 관한 본격적인 건축론이나 작가론이 존재하지 않게 하였다.

이상 이 건축사에서 배제된 또다른 이유는 경성고공을 졸업 이후 건축가들과의 교류가 거의 끊겼다는 점이다. 총독부 시절부터 그가 주로 어울렸던 사람들은 주로 문인이었고, 여기에 구분용이라는 화가가 끼여 있을 뿐이었다. 그가 총독부 관방회계과 영선계에 다닐 당시 세명의 한국인(박길룡, 박동진, 김세연)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상의 시나 소설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 건축에 대해서도 초기의 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서구의 아방가르드들의 경우,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조형세계는 대부분 건축가들에 의해 수용되어 구체적인 조형형태와 공간

으로 발전되었다. 큐비즘과 드 스틸, 구성주의가 근대건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상시에서 나타난 근대성은 더 이상 건축가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박길룡과 박동진에 이어 한국의 건축계를 이끈 사람은 김수근과 김중업인데, 이들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건축을 익히지 않고, 일본과 프랑스에서 건축을 배워 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근대성 혹은 근대 건축은 서구에서 새롭게 배워 온 것이지, 결코 이상과 같은 한국의 아방가르드들이 배태한 것이 아니었다. 역사서술에서 인과성은 매우 중요한데, 이상의 시와 한국의 근대건축과는 이런 연결고리가 없다. 그래서 이상문학은 한국건축사에서 하나의 고립된 섬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어느정도 흘러 이상이 살았던 시대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시대에 대해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이상문학을 다시 건축쪽에서 바라볼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상문학은 한국 건축의 근대성을 논의할 때마다 마치 진공상태처럼 비어져 있는 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이상 문학이 한국 건축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한국건축의 '근대성'을 논의할 때마다, 두가지 이유 때문에 심한 뒤틀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먼저, 한국건축의 근대성을 일제시대 최초의 한국건축가인 박길룡과 박동진에게서 구할 경우, 그들의 작품과 활동에서 서구 아방가르드에게서 볼 수 있는 침예한 근대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이 취한 태도는 일본 건축가들이 메이지 유신 이후 취한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즉 "당시 일본의 건축가들은 유럽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문화에 직면해서는, 재빨리 이것을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으로 구분한 다음, 이 가운데 '물질문명'만을 흡수했던 것이다."⁵⁰⁾ 박길룡과 박동진이 쓴 글에서 이런 점은 명확히 나타난다. 박길룡이 관심을 주로

49) 이상의 여동생인 김옥희는 이상의 총독부 기사시절을 회상하면서, 서울대학교 문리대 교양학부로 생각되는 대학건물을 이상이 설계하였다고 회상하였다. 이상이 총독부에 재직할 당시 이 건물의 설계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20년대 신축되는 학교건물의 설계는 일본인에 의해 주도되었고, 한국인 기수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만다. 이 당시 학교건물설계를 주도한 사람은 岩槻善之이다. 그는 경성제대 건물중에서 중요한 건물인 경성제대 본부, 경성제대의학부, 법문학부 본부건물을 설계하였다. 이영한, 한국고등학교 시설에 있어서 공간유형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1년, 21쪽.

50. 稻垣榮三, 日本の近代建築, SD 출판사, 16-18쪽.

집중한 것은 주택의 내부기능이나 온돌의 성능 향상과 같은 주택개량에 관한 것이다.⁵¹⁾ 이것은 주택의 기능과 설비에 관한 매우 기술적인 문제였다. 또 그는 설계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근대건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시각은 박동진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물론 동아일보에 기고한 <현대건축의 추세>라는 글을 통해 근대건축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논하고 있지만,⁵²⁾ 서구 아방-가르드에게서 나타나는 정신의 폭과 깊이를 가지지 못했다.

두 번째로 한국건축의 근대성을 김수근과 김중업 같은 1960년대 이후의 건축가들에게 찾을 수 있으나, 이들은 시기적으로 근대건축과 너무나 떨어져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이 시기에 근대건축이 발생시킨 많은 문제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의 대안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근대건축이 발생한지 이미 한 세대가 흘러버린 것이다. 이런 점들은 건축역사가들을 곤궁에 빠트리고 있다. 한국건축에서 '근대성(modernity)'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생적인 '탈근대성(post-modernity)'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새로움을 배태시킬 기반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상의 초기시는 이런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의 초기시는 근대적 아방-가르드들이 가졌던 첨예한 근대의식과 정신세계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현실을 순수한 시각적 기호로 해체하여 그것을 특유의 자의식으로 재조합하려 하였다. 이것은 건축과 연관된 서구 아방-가르드들에게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자본주

의적 대도시의 탄생과 거기서 발생하는 충격과 소외감, 무기력함을 시로서 승화시켰다. 그래서 이상의 초기 시들은 한국근대건축에서 공백처럼 비어있는 '근대성'을 조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우리가 이상의 초기 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이승훈 엮음, 이상문학전집 1, 시, 문학사상사, 1989년.
2. 김윤식 엮음, 이상문학전집 2, 소설, 문학사상사, 1989년.
3. 김윤식 엮음, 이상문학전집 3, 수필, 문학사상사, 1989년.
4. 김윤식 편저, 이상문학전집 4, 참고자료모음, 문학사상사, 1989년.
5.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7년
6. 김윤식, 李箱論의 행방, 심상, 1975년3월.
7. 고은, 이상평전, 청하, 1992년
8. 박진환, 정신분석으로 심층해부한 이상문학연구, 조선문학사, 1995년
9. 김종은, 이상의 정신세계, 심상, 1975년 3월 ;
10. 조두영, 이상초기작품의 정신분석, 신경정신의학, 38호, 1977년 2월.
11. 조동민, 'Cubism을 통해서 본 한국의 해체시', 문호, 건국대, 1969년
12. 구연식, 한국다다이즘의 비교문학적 연구, 문학사, 1979년.
13. 김정은, 해체와 조합의 시학, 문학사상, 1985년 12월.
14. 김승희 편저, 이상 (이상 시전집, 산문집, 이상평전, 연구자료), 문학세계사, 1996년.
15. Diane Macdonell, Theories of Discourse(담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옮김), 한울
16. Manfredo Tafuri, Projet et Utopie, Dunod, Paris, 1979년, 70-71쪽.

51) 박길룡이 쓴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행성의 소위 문화주택> (1930년 9월 조선일보), <문화식 별장> (1932년 7월 동아일보), <재래식 주거개선에 대하여>, <소액 수입자 주택시안>, <재래식 온돌구조>, <온돌개선에 대하여> 등이다.

52) 박동진이 쓴 글은 다음과 같다. <곡선과 건축미> (신동아 1권2호, 1931년), <우리주택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1년 3월4일부터 4월 5일까지 연재), <조선주택개혁론> (춘추, 제2권7호, 1941년)

17. Leonard Benevolo, The origins of Modern Town planning (근대도시계획의 기원과 유평피아), 장성수, 윤혜정 역, 태림문화사.
18.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말과 사물, 이광래 옮김), 민음사
19. Marcel Roncayolo, Histoire de la France urbaine, Tome IV, Seuil, 1983년.
20. Walter Benjamin, 문예비평과 이론, 문예출판사, (이태동 역),
21. 최순애, 박길룡의 생애와 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1년.
22. 안창모, 건축가 박동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년.
23. 김현철, 몽드리앙의 조형공간 교육론, 발언, 1996년.
24. 稻垣榮三, 日本の近代建築, SD 출판사
25. 손정목, 일제강점기의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년.
26. 권영민 엮음, 이상문학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년.

A Study on the Modernity of Korean Architecture appeared in Yi Sang's Early Poems

Jung, Inha
(Hanyang University)

ABSTRACT

Poet, Yi-sang, born in 1910, originally studied architecture in Kyeong Sung High Technical School. He also experienced an architectural practice in Chosun Chongdokbu (the Government office of Japanese empire in Korea) during 4 years. After resigned the post of architectural engineer in 1933, he became a man of letters. Until his death in 1937, he published the writings hard to understand, which remind us of the works of western avant-garde. Because of the peculiarity and difficulty of his poem and novels, he becomes the object of studies by many critics and historians of literature. And he is estimated as the representative of Korean modernism.

This study tries to related Yi-sang's early poems to architectural discourse for the search of 'modernity'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His early poems, which is published in <Chosun and Architecture> from 1931 to 1933, are worthy of notice because they contained a acute shock derived from radically changed spacial structure, the absolute emptiness of the individual happened in the 1930's Seoul. They also show a different attitude from the writings of Park Dongjin and Park Kilryong, the architects contemporary with Yi-Sang. Compared with their writings, Yi sang's early poems had an insight into the totality of modern culture like western avant-gardes. Therefore Yi-sang's early poems can give us a good bas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ty' of Korean architecture.